

취임 100일 박성수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에 듣는다

“광주공항 제기능 못해 무안으로 이전해야”

최근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만큼 주목을 받은 지역인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성관 초대 원장의 불명예 퇴임 후 공모를 통해 원장이 된 뒤 민선 6기 화두로 부상한 광주·전남 상생의 대표인물이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하부 연구기관 성격이 짝했던 과거를 지우고 광주시와 전남도를 아우르며, 지역 미래 비전을 내놓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주어졌다. 이제 막 취임 100일이 지났을 뿐인 그에게 지나친 ‘옥죄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기대는 높고, 각계의 바람 역시 가득하다.

더민 산업화, 국토 불균형 발전, 청년층 이탈과 질 높은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와 고령화, 미래 성장 동력 미비, 낮은 소득 등 광주·전남은 기본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 ‘작아진 밥그릇’을 서로 차지하려는 광주와 전남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호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공항, 철도 등 기반시설은 물론 신산업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도 부쩍 잦아졌다.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시와 전남도를 조율하며, 약점과 위기를 강점과 기회로 살려낼 수 있을지 박 원장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시적인 것이다. 차분한 말투와 부드러운 미소로, 조목조목 자신의 ‘그림’을 설명한 그는 1년간 준비해 궤도에 올라서고, 3년 후 퇴임하면서 연구원을 ‘지역 씽크탱크’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목표를 조심스럽게 설정했다.



합 문제가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나?

▲뜨거운 감자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광주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다. 국제선도 없어 제주 연계 기능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걸림돌이다. 정부로부터 광주가 받고 싶은 인센티브, 전남도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아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서로 다들 문제는 아니며,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지역이 지혜를 모아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광주역 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대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도시기간시설의 기능을 찾아주려면 복합 문화레저기능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유동인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시와 전남도, 앞으로 어떤 비전을 만들어야 하나?

▲철강,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인 지역 기간산업이 난관을 겪고 있다. 연구원의 역할은 지역이 치고나 가야할 과제를 찾아내는 것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에너지·문화·자동차, 전남은 에너지·문

공항 통합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야

광주역 복합문화레저기능 더해지길

광주-전남 상생 비전 역할 배분중요

하·철강·화학·신재생에너지 등인데, 서로의 역할 배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상대방의 경쟁력은 인정해주는 거 시적인 방향에서 조정해볼 생각이다.

-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나?

▲현장과 세미나, 포럼 등 공유의 장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연구원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나갔으면 한다. 투명하고, 공개하며, 참여하도록 하는 연구원을 만들어 조직원들이 자존심을 갖고 스스로의 연구에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위엄업을 해야하듯 조금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1년 동안 조직을 재정비해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 가지 성과라면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중국 관련 지역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의 협력사업을 연구원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연구본부장 신설·부원장제 도입

현장연구 강화 산업계 목소리 대변

3년후 ‘지역 씽크탱크’ 자리매김

다음은 일문일답.

-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12일 임명장을 받았다. 취임 100일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시간이 화살 같이 흘러 너무도 분주하게 정신없이 보냈다. 연구원 가족들과 1박2일을 보내면서 이력서 관련 속깊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

- 조만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사하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들었다.

▲연구원 본연의 기능은 연구다. 연구본부장을 신설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기능을 분리할 방침이다. 내부인사 중 연구본부장을 선임하고, 앞으로 조직이 성장하면 부원장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 지금 당장 인력 총원 없이 슬림한 조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을 뒤 홍보,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지역 유관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 연구원 후원회 관리 등을 맡길 생각이다.

- 연구기능이 여전히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연구원 연구의 특징은 정책연구이면서 동시에 특화연구, 현장연구다. 대학의 연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만 연구성과물이 한정적으로 배포되고 정보 공유

가 시스템화되지 못했다.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장에서 연구의 결과 기대치를 올릴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이제 100일 밖에 안 됐지만, 광주·전남 현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안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광주에서 회의하면 전남을 대변하고, 전남도에 내려가면 광주 이야기를 하는 처지다. 연구원을 통합한 뒤 양 지역이 마치 상생은 다 된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에는 다소 실망감도 있다. 상생의 큰 뜻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스템은 그대로 두면서 각론에서 부딪치는 점도 고쳐야 할 부분이다.

-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은 실감하고 있나?

▲실감한다. 지금까지 광주시와 전남도, 어느 곳으로부터도 간섭이 없었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회의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예전과 같은 입장은 전혀 아니다.

- 구체적인 지역현안 중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



4·19혁명 56주년 기념식 19일 서울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황교안 총리와 각계인사들이 참석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 총리, 새누리당 원우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최고위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안철수 대표, 호남이어 영남 방문 “총선 지지 감사”

‘동진전략’ 추진

전국정당 발돋움 의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호남 방문에 이어 19일엔 영남지역을 찾아 4·13 총선에서 보여준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 때 영남지역에서 지역구 선거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정당투표에서는 ‘녹색태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 때 영남지역 정당투표에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상당수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은 ▲부산 20.3% ▲대구 17.4% ▲울산 21.1% ▲경북 14.8% ▲경남 17.4% 등으로 선전했고,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20대 국회의장 더민주가 차지하나

야당 몫 부의장엔 국민의당이 맡기로 공감대

무소속 당선인들의 입당 여부로 20대 국회 제1당이 불분명한 가운데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부에서 국회의장은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에서 맡고, 야당 몫 국회의장을 제3당인 국민의당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더민주(123석)와 국민의당(38석) 두 야당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수(161석)를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양당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합의하면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20대 국회 전반이 국회의장은 더민주 소속 의원이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이 야권의 승리를 느끼는 큰 변화 중 하나는 의회권을 야권이 가져오는 것”이라며 “과반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국회의장단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맡고, 부의장 한 자리는 국민의당이 맡아야 한

다.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3당 체제를 만들었으니, 부의장 1석은 당연히 우리가 맡는 게 맞다”며 “국회의장은 제1당인 더민주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고향인 부산과 대구를 잇따라 방문했다.

안 대표는 제일 먼저 부산 민주공원에서 4·19 위령탑을 참배하고 무궁화 심기 행사에 동참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 출마자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추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잇따라 시민들과 만나 인사하고, 대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출마자 및 지역 당직자들과 만찬간담회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창사 64주년

비전과 열정이 있는 기업, 한전KPS

오늘을 넘어 미래를 봅니다!

정부는 3.0

[국민·기업·사회·환경]

창조적 선도기업 한전KPS

세계를 이어가기는 앞선 기술과 최고의 인재들로
초일류 전력설비 정비전문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www.kps.co.kr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빛가람동 377)